

부엌과 심리학 실험실에서의 기억은 어떻게 다른가?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예를 들면 ‘부엌’이라는 장소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주위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조리용구, 식자재나 요리의 주재료 등, 우리의 삶에 있어 유용한것들로 가득 차 있다.

부엌이라는 장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도구, 재료도 우리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가장 『알맞은 역할』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서 보통은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것인데, 부엌은 미리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리용구, 식자재나 레시피는 그것에 어울리는 장소에 각각 놓여 있을 것이다. 또한 조리 재료를 예로 들어보면 야채는 냉장고의 야채보관실에 고기는 냉동실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분류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조리가 끝난 후에는 다시 이러한 다양한 도구, 재료를 원래 있는 곳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상의 환경은 예를 들면 부엌에 있는 조리기구, 재료, 조미료 등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자원(functional resources)’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러한 기능적 자원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계를 갖춘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지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인지심리학의 주된 연구대상 중의 하나인 ‘재생(recall)’이라는 활동을 이러한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주어진 환경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칼을 찾을 때에는 전혀 망설임이 없이 식칼, 가위와 같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놓여 있는 장소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억과제와는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대상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구조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혹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부엌’이라는 환경을 사전에 그렇게 구성해 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머릿속의 구성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경의 구성 방식 속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주체는 심리학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오로지 개인이 갖고 있는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것)과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혹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실험실에서 기억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과제를 바꾸어 나가면서 우리의 ‘인지적 역할’도 바뀌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라면 ‘생각을 해내는 사람’을 살다가 부엌이라는 환경에서는 ‘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개인의 인지과정도 바뀌는 것이다. 즉, 학습은 다름 아닌 관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산물(보호색을 발동하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부엌의 다양한 자원과 그 배치방식을 외부기억의 보조적인 도구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기억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기억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기억의 보조라는 것은 내부기억이 고정된 인지능력의 일종이라는 암묵적 전제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 이분법적 관점에 서게 되면 따라서 외부기억을 통해서 단지 기억과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환경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과제의 변화, 기억과제에서 다른 과제(예컨대 얼마만큼 잘 보느냐 하는 ‘보는 과제’)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맡아야 할 역할이 바뀐 것이지, 단지 고정된 기억능력과 기억과제를 위한 외부적인 원조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학습을 관계의 변화 혹은 여러 배치의 변화라고 본다면 기억을 단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과정으로 보기 보다는 ‘주체(agent)’가 스스로 구성하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지과정, 예를 들면 기억이라는 활동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그러면 노래방이 생기고 나서 노래가사를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까?